

# 미래 전주경제 견인 중소기업 육성

###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 · 시제품 제작비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등 지속적 전개

지역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주시 금속가공 기업들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전주시는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지역 금속가공 소공인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기업지원 성과보고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회원기업들과 지난 1년간의 활동 및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강한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인재 채용에 목마른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성과물 전시 유공자 표창 성과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는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기업 10곳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중소기업청장상, 전북도지사상, 전주 시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로 전주시 장상을 수상한 대승은 일자리창출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주벤처추진지구 지원사업을 통해 농기계·농자재 특허를 등록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슬라이더 방식으로 적용된 교정용 의자 개발에 성공한 미동체어와 전기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제품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있는 (주)대경산전도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제품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힘써 일자리 창출과 벤처추진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매주 간부급 공무원이 기업대표들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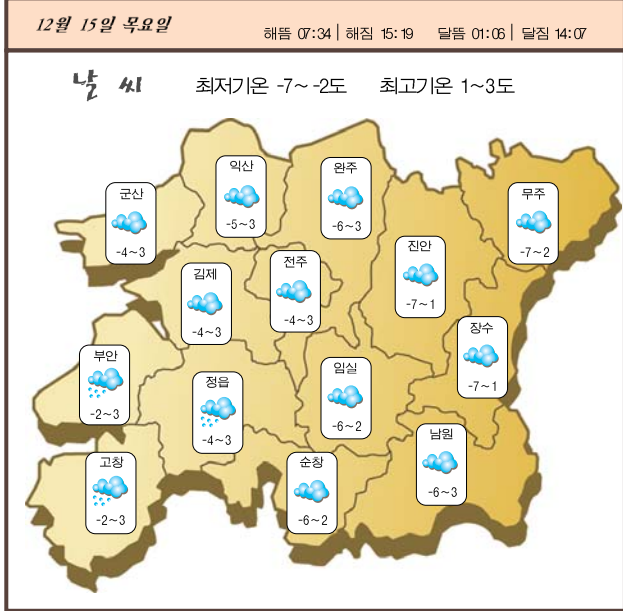
또 매년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 중 소·벤처기업의 생산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왔다.

시와 협의회는 현재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벤처추진지구 내에 금속가공 산업의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안병수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지난 2011년 전주벤처추진지구 지정 이후 전주벤처단지(전주벤처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등 7개 지구에 320개 중소·벤처기업이 들어서 5510명의 일자리 터전이 마련됐다"면서 "지역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살리는 일과 같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예정자와 초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기술지원,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재직자 직무능력 교육, 해외시장 개척 등 수요기반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4년 전국벤처추진지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손꼽혀왔다.



### 도내 초등학교 절반 23일 겨울방학 '시작'

도내 초등학교 절반이 23일 겨울방학을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달 23일 도내 417개 초등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203개 초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2개 초등학교는 27일 겨울방학을 한다. 중학교는 27일부터 30일까지 209개 학교 중 171개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며 고등학교도 이 기간에 133개 학교 중 112개 학교가 방학에 돌입한다.

겨울방학 기간은 40여일 가량이 방학을 마치는 시업식은 초등학교의 경우 2월 1일 188개 학교, 2월 6일이 140개 학교로 가장 많다. 중·고등학교도 이 기간에 가장 많은 학교가 시업식을 한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는 겨울방학을 마치고 대략 10여일간 등교를 했다가 종업식과 함께 학년 말 방학에 돌입한다.

## 전주시 에코시티 연계도로 3곳 개설 추진

### 호성동·전미동·송천동 3개 지역 각각 연결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인 에코시티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연계도로 3곳을 개설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9년까지 에코시티와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등 3개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연계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계도로가 개설되면,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전주시 북부권 주민들이 겪는 교통 혼잡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호성동 고당네거리에서 에코시티 사업지구의 동쪽 입구인 초포초등학교에 이르는 초포로에 길이 1.2km, 폭 20~22m의 중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송천동 등부대로에서 에코시티 사업지구, 전미동 미산초등학교 앞에서 사업지구로 이르는 전미로 구간 2개소에는 각각 490m와 870m 길이에 폭 25m 규모의 대로가 개설된다. 사업비는 약 300억원(민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에코시티 연계도로 3곳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까지 토지보상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곧바로 공사에 착



새만금 갯벌에서 목격된 저어새

14일 전북지역 환경단체는 새만금 3공구 수리 갯벌에 멸종위기 1급 저어새를 비롯한 희귀 조류의 서식이 확인됐다며 매립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4일 환경단체 회원의 카메라에 담긴 멸종위기 1급 저어새 무리.

수해 오는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0만㎡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

책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만㎡ 규모에 이르는 에코시티 개발지구의 연계도로 개설을 추진해왔다.

조석원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에코시티는 오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에

코시티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교육청, 권역별 예산 설명회 개최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등 총 1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5일동안 권역별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5일에는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대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16일에는 군산 익산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 19일에는 정읍, 고창을 대상으로 정읍고등학교, 20일에는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은 이번 권역별 예산 설명회를 통해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보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예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